



캣츠 유혹에 빠진 광주 흥겨운 고양이들의 축제를 그린 히트 뮤지컬 '캣츠' 한국어판 공연이 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유주현 등 정상급 뮤지컬 스타들이 출연한 이번 공연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며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구 건강복지타운 의혹투성이

- ① 지상 시설 불가능한 부지 선정
- ② 구유지 있으면서 사유지 매입
- ③ 설계업체 선정 오락가락 행정

광주시 북구청이 건강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모든 시설물을 지하에 지을 수 밖에 없는 '도시근린공원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는가 하면 설계업체 선정에 오락가락 행정을 펴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1일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설계에 들어간 건강복지타운은 북구 우산동 574-5번지 무등도서관 뒤편 공터에 내년 말까지 지어질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등 166억원이다.

그러나 이곳은 우산근린공원 내에 속하며,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항의 "도시근린공원 내에는 도서관이나 운동시설 등은 해당공원시설 부지면

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지상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했다.

이곳에는 무등도서관과 골프연습장 등 기존 시설물이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할 건강복지타운의 핵심 시설인 수영장·헬스클럽(운동시설)과 보호치료실·단기보호실(아동시설)은 예상초 지하에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북구 건강복지타운이 이대로 지어진다면 '건강·복지 시설'로서는 비상식적으로 자연재광이나 통풍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터파기 공사 등으로 공사비는 2~3배 늘게 돼 현재 확보된 예산은

로는 내년 말 완공을 담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북구청은 다른 곳에 224필지 4만3천934㎡의 구유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9필지 9천582㎡를 매입(32억원)하면서까지 해당부지를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건강복지타운을 성사시킨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 내에는 이 곳 밖에 부지가 없었다"며 "지하로 들어가면서 늘어난 공사금액은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가 유치할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치에 실패할 경우엔 예산에 맞춰 소규모 수영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 아직까지 사업 규모 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건강·복지타운은 강기정 국회의원이 지난해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확보해 국비 11억여 원, 시비 75억 5천여만 원, 구비 29억 5천여만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모두 6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강기정 의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지 선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고, 애초 아동시설과 건강 타운을 따로 분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북구청에서 두 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북구청이 부지를 선정해 이에 찬성한 것밖에 없다"면서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되며,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강 의원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특히 북구청은 지난달 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명시, 법규상 추가 시설물을 지상에 지을 수 없음에도 여과한 지침을 내렸다가 한달 뒤인 지난 2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때에는 과업지시서대로 설계한 2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어떤 영문인지 지하로만 설계해온 2개 업체를 선정, 22일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남북 '개성접촉' 진통

남북간 '개성접촉'이 접촉 장소와 의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총 7차례 예비접촉을 갖고 접촉장소·의제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했다. 오전에 이뤄진 예비접촉 때 우리 대표단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본 접촉을 하자고 했고 북측은 자기측 건물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으로 남측 대표단이 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오후 예비접촉 때 총국 건물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한 접견이 이뤄지면 총국 건물을 포함, 어디서든 본 접촉을 할 수 있다며 유씨에 대한 접견 허용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불황에 한탕 꿈꾸고 담배로 시름 달랬나

광주·전남 경매세·담배 소비세 늘어

한 모금 담배 연기로 불황의 시름을 달래고, 한 탕 도박으로 대박의 꿈을 이루려 한 걸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민들의 살림살이가 조물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거에 거액을 노리는 세태를 반영한 듯 담배 소비세와 스크린 경매에 물리는 레저세 납부가 늘었다.

21일 광주시가 올 1·4분기 지방세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담배 소비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억 원이 늘어난 185억 원, 스크린경매장 마련에 붙는 레저세도 20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할 경우 납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늘면서 자동차세는 지난

해 71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무려 20억 원이 급증했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주 수완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 덕분에 각각 369억 원과 425억 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62억 원, 333억 원보다 각각 107억 원, 92억 원 늘었다.

반면 주민세(법인세환)는 지난해보다 15억원이 감소한 142억원에 그쳤다.

전남도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전년 대비 11억 2천 300만 원 증가한 257억 5천 700만 원에 달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년대비 각각 20.2%와 22.1%가 줄었으며, 면허세도 22%가 감소했다. 특히 종합토지세는 전년 2천 7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81.5%가 줄었다. /윤현석·최권일기자 chadol@

알림

제36회 光日 보훈대상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日 보훈대상이 올해로 36돌을 맞이합니다.

光日 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에 극복하고 곳곳에 삶의 터전

을 꾸려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자의 배우자로서 중상자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력한 사람

- 접수 : 2009년 4월 30일(목)까지
- 발표 : 2009년 6월 2일(화) 광주일보
- 시상 : 5명(상금 각 100만원 및 부상)
- 시상일시 : 2009년 6월 6일(토) 오전 10시30분
- 장소 : 광주시민회관(광주공원내)
- 문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975-6642)

주최: 光日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립문화재단 후원

GIGF

광주국제골프박람회

광주광역시립문화재단 후원

2009년 4월 24일(토) ~ 26일(월)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2009년 4월 24일(토) ~ 26일(월)

4월 24일(토) ~ 26일(월) : 스크린골프대회/골프세션/부로서티/피티실습/장타대회

이 행사기간 중 스크린 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문의: (주)광주국제골프 박람회 010-8228-8078

주최: 2009년 4월 24일(토) ~ 26일(월)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문의: (주)광주국제골프 박람회 010-8228-8078